

가축분뇨 처리 실시간 관리로 양돈 농가 울상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액비 살포방식이 가축분뇨법 위반 간주돼 처리비용 상승 불가피

지난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양돈 농가들의 분뇨처리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시행으로 그동안 일방적으로 이뤄졌던 액비 살포방식이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간주되면서 과태료 부과 및 액비 처리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의무화 된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가축분뇨 발생 장소와 이동·처리·액비 살포 등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가축분뇨 중 환경오염 우려가 가장 크며 우선 폐기분뇨부터 적용을 시작했다.

다만, 사육면적 50㎡(약 15.1평) 이상 1000㎡(약 303평) 미만의 신고대상

폐기분뇨 배출시설은 2019년 1월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개별 양돈 농가에서 가축분뇨 액비 재활용 신고를 한 경우 해당 농가의 액비는 이 농가에서 재활용 신고한 농경지에만 살포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액비 살포는 대다수의 농가들이 운송·살포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액비 유통센터와 위탁계약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장 여건상 액비유통센터에서는 부속된 순서대로 액비를 수거해 재활용 신고 돼 있는 가까운 농경지부터 살포하기 때문에 A농가에서 생산한 액비가 다른 농가에서 재활용 신고한 B 농경지에 먼저 뿌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액비 운송 비용과 소요시간이 크게 늘어 처리비용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 하고, 액비가 필요한 농경지에 제때 살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지난 1월부터 액비 생산 농가와 이 액비가 살포되는 재활용 농경지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액비를 처리했던 방법이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민약 환경부 등 중앙기관에서 전자인계시스템을 직접 운영할 경우 현장 상황을 고려해 실제 단속은 느슨하게 할 수도 있지만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의해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을 한 국환경공단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지자체 단속도 정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생산자단체에선 현실적으로 A 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A농가의 재활용 농경지에 살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양돈 농가에서 분뇨를 액비화 한 이후 운송·살포를 액비유통센터에 위탁할 경우 농가의 재활용 농경지 확보 의무를 제외시키고, 실제 액비를 살포하는 액비유통센터가 농경지를 확보해 농가와 위탁계약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관계자는 "액비화 시설을 보유한 유통센터는 재활용 농경지 확보가 가능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국 207개 액비유통센터 중 30%가 자가 처리시설이 없거나 1000톤 이하인 운송·살포 중심의 액비유통센터"라며 "농가 위탁계약 서류가 있을 경우 유통센터도 재활용 농경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양돈 농가에서는 과태료 부과, 액비 처리비용 상승 등 분뇨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재용 기자



한전 전북본부는 7일 본부 강당에서 김락현 본부장과 최흥철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간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를 가졌다.

한전 전북본부, 노사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

한전 전북본부는 지난 7일 본부 강당에서 김락현 본부장과 최흥철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실·처장 및 사업소장 등 노사 간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우수 본부 달성을 다짐하기 위한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본부장-사업소장 간 최우수 사업소 달성을 위한 경영목표를 확립하고, 본부 특화 과제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업소간 협력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본부 역량을 집중해 세부 계획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노사 대표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도전과 변화의 시대에 신뢰와 존중으로 한마음으로 열린 경영 실천과 인간 존중의 기업문화를 확립할 것을 결의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로 경영 효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로 공기업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자는 노사협력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김락현 본부장은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사업소장과 노조 위원장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신협, 공제사업서 '전국 2위' 차지

연체율 1.76%로 개선 · 당기순이익 114억원 시현

신협중앙회 전북지부는 지난 7일 르윈호텔에서 관내 이사장, 상임이사, 실무책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신협 2016년 사업평가 및 2017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2016년도 사업평가에 따르면 지난 해 전북신협은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연체율을 1.76%로 개선했고, 11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해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

사업부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제사업에서는 전국 2위를 차지

하며 선전했다는 평가다.

사업부문 외에도 전북신협은 자체 봉사단체인 두손모아봉사단을 통해 온 세상 사랑나눔 등 정기적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KCC농구단과 '사랑의 3점슛 행사' (쌀 지원), '3차녀 이상 다둥이 얼마 초청 제주도 연수'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주덕진 신협이 경영대상의 영예를 차지했으며 이리주현 신협, 예수병원 신협, 우리신협이 경영최우수상을 수상, 전주가나안 신협을 비롯한 28개 조합이 2016년도

경영평가 우수조합에 선정되는 등 수상의 영광을 가졌다.

한편 경영 및 공제사업 등 사업평가에서 모범이 되는 임·직원 5명에 대한 중앙회장 표창 시상도 있었다.

문철상 신협중앙회장은 격려사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 귀퉁이에서 출발한 신협이 자산 75조, 조합원수 600만에 이르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하는데 전북신협이 일조했다"며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꿋꿋이 한 전북신협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전북신협이 신협정신과 그 이념에 부합하는 조합 경영과 나눔 활동을 실천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자리매

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당부했다.

신협전북지역협의회 이석계 회장(은누리신협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전북신협인이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발휘한다면 올해에도 변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신협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신협으로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신협중앙회 우육현 전북본부장은 2017년 한 해에도 '일일신협 으뜸전복'을 만들기 위해 대출증대, 수익기반 확대, ROA 0.3% 이상 증대 및 사교 없는 전북신협이 될 수 있도록 전북신협 임·직원들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전북신협은 1월말 현재 조합원수 42만명, 총자산 4조8,000억원, 예적금 4조4,000억원, 대출금 3조2,000억원, 출자금 1,7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농신보, AI 피해농가 특례보증

최근 고령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 피해복구 지원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적극 나선다.

농신보는 AI피해를 입은 가금류 농가의 입식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원 대상은 행정기관에서 정책자금을 배정 받은 농업인, 농수산단체(법인포함)이다.

우선,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농

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을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100% 전액보증지원하고 신용조사를 간소화하되 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와 별도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사료비 경감을 위해 별도 운용하고 있는 '농어가특별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의 책임분담비율을 (현행) 85% → (변경) 95%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피해 축산농가가 입식 후 사료비 등을 더욱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중기청,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 모집

전북중소기업청은 평생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청소년 비즈쿨' 운영학교를 모집한다.

중소기업청은 2002년 16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을 시작해 청소년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비즈쿨 운영학교 지원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전북중소기업청은 도내 22개 교육기관에 2억7,500만원을 지원했다.

전북중기청은 비즈쿨 학교 운영과 더불어, 올해에는 비즈쿨 미운영 학교와 정규 교육 밖에 있는 학생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즈쿨 프로그램의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 모바일 전용 상품 출시

'JB Smart-App 통장' 금리·수수료 우대 혜택

요 대상으로 보통예금 기본금리 연 0.1%에 종이통장 미발행 우대금리 연 0.2%를 추가제공해 최대 연 0.3%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일정 우대조건 충족시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월 10회, 전북은행 CD/ATM 영업시간의 현금인출수수료 월 5회, 전북은행 CD/ATM 타행이체 수수료 월 5회, 타행 CD/ATM 현금인출수수료 월 5회 면제 및 외화 환전시 환율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입출금 거래내역 메모·통계 기능의 부가 서비스 및 통장이나 카드없이 ATM에서 전북은행 뉴스마트뱅킹을 통한 스마트출금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은 영업점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모바일 전용 입출금 예금 상품인 'JB Smart-App 통장'을 9일 출시한다.

'JB Smart-APP 통장'은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선진화의 일환으로 종이통장 미발급 통장 확대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종이통장 미발급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우대 및 수수료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스마트폰을 통한 금융 거래에 익숙한 20~30대 고객을 주

정황근 농진청장,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협 개최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은 8일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협 의회를 열고 당면 영농 사정 점검과 청의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과 지방 농촌진흥기관장 25명이 참석하는 이날 협의회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Top5 융복합프로젝트'와 '쌀 적정 생산을 위한 현장기술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인재용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